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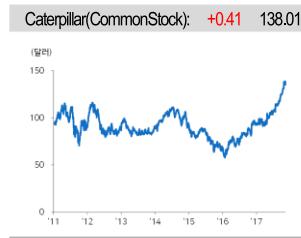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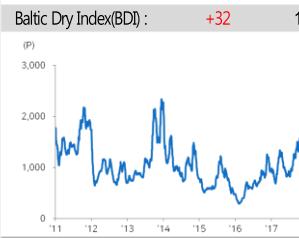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8,329.8	21.2	147,000	0.0	-0.7	-2.6	62	52.9	119.6	0.7	0.7	1.3	0.6
현대로보티кс	6,197.1	20.0	380,500	-0.8	-14.4	-12.7	N/A	4.2	4.7	0.8	0.7	19.4	15.8
현대캐피탈	1,101.0	6.2	118,000	3.1	-3.5	-14.4	N/A	5.8	3.9	0.5	0.5	9.5	13.1
현대건설기계	1,644.4	9.6	166,500	-1.5	-8.1	0.8	N/A	5.2	4.0	0.7	0.6	13.1	15.8
삼성중공업	4,994.5	19.6	12,550	0.4	13.6	15.1	35.7	63.7	135.8	0.8	0.8	1.2	0.6
대우조선해양	1,880.0	3.2	17,900	-2.7	N/A	N/A	-60.0	1.1	10.1	0.4	0.5	63.6	4.9
현대미포조선	1,928.0	13.3	96,400	0.4	-2.0	-3.5	43.5	9.5	32.7	0.8	0.8	8.9	2.4
한진중공업	394.5	4.3	3,720	1.1	1.2	-16.7	10.5	-11.6	8.4	0.4	0.4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312.9	32.4	53,300	0.8	-1.3	2.9	-7.1	9.9	9.4	1.5	1.3	15.9	14.6
두산밥캣	3,383.4	24.2	33,750	0.4	-10.4	-9.2	-5.9	14.8	13.6	0.9	0.9	6.6	6.7
현대로템	1,589.5	28.3	18,700	0.3	8.1	4.8	3.0	354	24.0	1.1	1.1	32	4.6
하이록코리아	368.9	47.3	27,100	4.4	24.9	26.6	284	14.2	12.5	1.2	1.1	8.5	9.0
성광밴드	288.9	14.6	10,100	3.6	7.9	5.9	14.0	32.6	18.8	0.6	0.6	1.9	3.2
태광	287.5	16.6	10,850	4.8	13.1	12.9	30.9	40.6	22.4	0.7	0.6	1.6	2.9
두산중공업	1,730.0	8.1	16,250	22	-11.7	-10.0	-403	-64.9	10.5	0.6	0.6	-0.6	5.0
두산인프라코어	1,867.7	12.3	9,000	1.6	-1.9	12.1	20	9.3	8.0	0.9	0.8	9.8	10.6
두산엔진	357.9	5.6	5,150	3.2	35.2	34.3	56.8	36.8	36.4	0.7	0.7	1.8	1.8
한국항공우주산업	5,039.5	18.6	51,700	0.2	-8.8	23.8	-22.8	-85.9	28.0	3.8	3.5	-4.2	12.7
한화테크윈	1,901.5	20.1	36,150	0.6	0.3	-8.0	-16.8	28.0	17.9	0.8	0.8	29	4.4
LIG넥스원	1,317.8	13.9	59,900	0.8	-21.5	-23.7	-25.6	254	14.3	2.0	1.8	8.2	13.3
태웅	358.1	1.5	17,900	2.3	0.6	-11.6	-20.3	N/A	N/A	N/A	N/A	N/A	N/A
동성회인텍	128.8	3.1	4,775	0.1	-3.9	-3.5	-17.0	N/A	N/A	N/A	N/A	N/A	N/A
한국카본	251.9	16.3	5,730	1.4	-3.4	-4.3	-53	19.2	25.9	0.8	0.8	4.1	3.0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종금증권 주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중요 뉴스 및 코멘트

Russians tour South Korean yards to shape up Arctic LNG-2 plans

러시아 Novatek 등 회사 관계자는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 쇄빙 LNG선이 필요한 Artic LNG-2 프로젝트를 논의했다고 알려짐. 해당 프로젝트는 2023년 가동 예정임. 관계자에 따르면, 논의의 주된 내용은 LNG선 건조기술과 지분으로 알려짐. 대우조선해양이 Yamal 프로젝트를 위해 계약한 Arc7 LNG선처럼, 비슷한 구조로 Zvezda 조선소에서 10~15척을 건조하는 것을 원함. Arc7 선박 중 첫 선박을 인도하는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프로젝트에 선호된다고 알려짐.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삼호중공업에서 Zvezda 조선소와 LNG-Fuel 추진 aframax 터커에 협력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Rosneft와 새로운 조선소에서 협력하고 있어 주요 계약자로 알려짐 (TradeWinds).

철강사 조선사에 판정승 진통끝에 후판간 8% 1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업체가 조선 3사에 납품하는 철강제품 가격을 4개월 연속 끝에 8% 인상에 합의했다고 알려짐. 기적인상과 더불어 납품을 주어둔 후판 물량을 끌 예정인기. 기준 가격 60만원에서 5만원정도 올랐다. 일련의 가격은 지난 7월부터 곤금받은 후판 정식화 때 수급 전용율 예정(노스필)

'중국 구조조정' 덕 보는 국내 철강·해운업계

철강업계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환경규제 강화를 위해 내년 3월 중순까지 28개 도시에서 철강생산 50% 감축명령을 발효함. 지난해 중국은 6,500만톤의 조강설비를 폐쇄함. 중국의 철강 구조조정과 원자재 가격 강세에 청간 가격은 상승, 중일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수직으로 증가 전망

Higher rig revenue for Odfjell

시추업체 Odfjell Drilling은 Rig 선대의 높은 가동률과 로봇장비 지원 매각을 통해 3분기 안정적인 이익을 유지함. Odfjell은 시추업체가 공급과잉에 약세를 보였으나, 최근 심해 시추시장에서 시장 안정화와 Enquiry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함. 또 Aker Borehole Halliburton과 Alliance 구조으로 실적이 기대됨. (Upstream)

Sovcomflot ups LNG-fuelled aframax order by two

러시아 Sovcomflot은 현대중공업에서 LNG-Fuel 옵션을 채택한 11.4만DWT급 aframax 텅커선 4+2척 건조계약 중 2척의 옵션을 행사했다고 알려짐. 해당 선박은 현대 삼성호랑공업에서 건조 중이며, 2019년 인도 예정임. 또 각 선박은 6천만달러로 알려져 선박에 대한 평가를 높여놓고 있다. LNG 벤치마크는 Sheibani(제이번아이)와 계약한 (TradeWinds)

2020 sulphur regs to cause 'paradigm shift' in shipping market

Deutsche Bank에 따르면, IMO의 환경규제가 선사들의 경쟁을 심화할 수 있다고 언급함.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선사들은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등 자본 소요가 필요함. 그러나 자본여력이 없는 선사는 연료절감을 위해 유수호도를 낮춰야 해서 경쟁에 뒤처질 것으로 전망함 (TradeWinds)

Analysts calm as Golar LNG project waits on EID into 2018

Golar LNG는 Fortuna FLNG 프로젝트에서 자금조달 지역으로 내년 초까지 FID(Final Investment Decision)이 지역될 것으로 알려짐. Golar의 파트너인 Ophir Energy는 중국 운행과 논의가 지연되면서 내년 1분기까지 FID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자금조달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임.(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11월 2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A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7년 11월 2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부분 담당자는 2017년 11월 2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성이 아닙니다. (작성자: 김현미)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